



성의 편지
이 어달리기

공수강산

11

2025년

루게 제 435호 월간



표지: 충성의 편지를 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한분만을 믿고 따를 충성의 맹세와 그이의 안녕을 바라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간절한 소원이 어린 충성의 편지를 안은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충성의 편지이어달리기대표단이 평양시내를 달리고있다.

사진 김성철

- 2 || 전면적국가부흥의 새시대를 펼치시어
- 7 || 국력평가의 기준을 두고
- 8 || 전민과학기술인재화는 전면적국가부흥의 위력한 담보
- 9 ||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에 관한 사상
- 일화
- 10 || 위민헌신의 나날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린 선물
- 11 || 도자공예 《모란꽃》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 12 || 낮에는 적의 세상, 밤이면 우리 세상
- 14 || 조선로동당창건 80돐에 즈음하여 재일, 재중 동포들 충성의 편지이어달리기 진행
- 고국방문
- 16 || 정이 든 명사십리
- 인상기
- 19 ||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 20 || 잊지 못할 나날들
- 인상기
- 22 || 나라가 강하고 흥함은...
- 22 || 오늘도 서있는 역사의 집



- 애국의 넓은 대를 이어
- 24 || 부모의 꿈을 조선보석화에 담아
- 고향소식
- 26 || 어제날의 약속고장이 지방발전의 전령에 섰다
- 30 || 각종 조명기구들을 생산
- 32 || 호평받는 《류원》신발들
- 34 || 미래의 설계가들
- 36 || 첨단기술제품개발에 힘을 넣어
- 37 || 생물수감기술연구에 심신을 바쳐
- 38 || 공산주의어머니영예상수상자들
- 40 || 세번째로 최우수감독이 된 신정림
- 42 || 메아리사격관
- 46 || 이채로움을 더해주는 완구상점
- 48 || 화성락원불고기식당
- 50 || 세계지질공원 백두산지구(3)
- 52 || 태권도도복과 띠
- 력사인물
- 54 || 16세기의 명인 리이
- 조국의 력사유적을 찾아
- 55 || 웅상동의 력사유적들
- 56 || 《을사5조약》의 불법무효성

편집: 김광수, 최은혁, 서철남, 문송연

전면적국가부흥의 새시대를 펼쳐시여

얼마전 조선동해기슭에 위치한 함경남도 락원군에 현대적인 바다가양식사업소와 어촌 문화주택지구가 준공하였다.
생산시설들과 소층, 단층의 각이한 살림집들,

편의봉사시설들로 꾸러진 어촌은 주변의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볼수록 특색이 있다.
건설은 해안연선지역 시, 군들이 자기의 자연 지리적잠재력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 활용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와 어촌문화주택지구



하여 지방경제의 자립적발전을 추동하고 지역 주민들의 물질생활을 하루빨리 향상시킬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지방발전정책에 따라 진행되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도시와 농촌, 어촌 할것 없이 건설이 활기차게 전개되고있다.

벌써 4번째로 되는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 전국도처에서 진행되고있는 농촌살림집건설, 신의주온실종합농장건설 및 지역개발사업, 휴양 및 료양시설인 온포근로자휴양소 신설공사를 비롯한 대상건설들이 준공을 눈앞에 두고있다.

돌이켜보면 2021년 1월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실천강령이 제시된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이후 오늘까지 5년간 우리 나라는 수많은 변혁적실체들을 떠올리었다.

다종다양한 첨단무기체계들이 련속적으로 개발 완성되어 우리의 방위력이 더한층 강화되었다.

나라의 면모도 일신되었다.

수도 평양에 특색있는 건축미를 자랑하며 행복의 보금자리들이 해마다 어김없이 펼쳐졌고 전국도처에 농촌살림집들이 수많이 일떠섰다. 삼지연시가 리상적인 지방도시로 천지개벽되고 검덕지구에 산악협곡도시가 솟아올랐으며 자연의 광란이 휩쓸었던 북변땅의 수해지역이 농촌문화 도시, 선경마을들로 일떠섰다.

대규모온실농장이 련이어 건설되고 전국의 20개 시, 군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산의 동음이 힘차게 울리였으며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가 바다가양식업의 새로운 표본으로 일떠서는 등 지방변혁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 인민들에게 새 문명, 새 생활, 새 행복을 안겨주는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하다면 그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조국과 인민을 위함에 만족과 끝을 모르시며 위민헌신의 려정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특출한 정치실력, 령도 실천에 기인된다.

그 어떤 훌륭한 결실도 원대한 리상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더우기 한 나라를 이끄는 령도자의 리상은 국가의 진보와 발전을 좌우하며 그 나라 정치에 반영되게 된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위대한 우리 인민에게 하루 빨리 세계가 부러워하는 만복을 다 안겨주시려는 드팀없는 의지, 이 땅우에 일떠서는 창조물들은 모든것이 다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서만 가치를 가진다는 확고한 신조가 그이의 리상과 포부에 판통되어있다.

그이께서는 보건위기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무수한 고난과 애로가 재현되고 도전들이 겹쳐 드는 속에서도 국방력강화와 나라의 전반부문, 전국의 모든 지역의 균형적, 동시적발전을 위한 대업을 구상하시고 끝없는 사색과 심혈을 기울 이시였다.

력사적인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전원회의들을 비롯한 중요회의들에서 그이께서는 사회주의



수도와 지방들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건설되어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배정되고있다.



전변시킨것을 비롯하여 인민과 한 약속을 가급적기간에 드립없이 훌륭한 결실로 이루어놓으신 그이이다.

지난해 7월 뜻하지 않은 큰물로 재난을 당한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 인민들의 생활을 시급히 안착시키기 위해 침수지역현지에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2차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가 열리고 불과 넉달 남짓한 기간에 수해의 흔적을 가지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보금자리가 일떠선 사실은 완강한 실천가, 인민의 령도자로서의 그이의 고매한 령도풍모를 보여준다.

이뿐인가.

자연의 재앙을 입은 김화군에서 재화의 흔적을 말끔히 가셔버리는것과 함께 군인민들의 생활개선을 위해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을 건설하도록 하시여 온 나라의 지방공업발전의 불씨가 되게 하여주시것은 열, 백을 구상하고 현실로 전환시키시는 그이의 비범한 령도력에 대한 증시로 된다.

사회주의보건의 상징물로 완공된 평양종합병원



건설의 상승국면을 이어나갈수 있는 실천강령들과 지침들을 제시하시였다.

국가방위력을 백방으로 다질데 대한 사상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에 관한 사상, 인민경제의 정비보강전략, 새시대 농촌혁명강령과 지방발전정책, 육아정책, 건설의 대변영기를 펼칠데 대한 사상, 새시대 보건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사상, 3대필수대상건설에 관한 사상 등 그이의 사상리론에는 사회주의건설의 전방위적 공간에서 변혁과 개변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구체적인 방략이 뚜렷이 명시되어있다.

우리 대에 할수 있는것은 다하고 미래에서 당겨올수 있는것은 최대한으로 당겨와야 한다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크나큰 용지가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정책 하나하나에 그대로 비껴있다.

로선과 정책이 아무리 정당하다 해도 그것이 옳바로 실행되지 않으면 그 가치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비범한 령도실천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령도하고

계신다.

그이는 일단 결심하신것은 무조건적으로 해내시는 완강한 실천가이시다. 내세운 투쟁목표들을 그 무엇이나 가급적으로 이룩해나가는 공격정신, 여러가지 사업들을 동시적으로, 확실하게 밀고나가는 비상한 전개력과 급변하는 정세흐름에 주동적으로 대응하는 령활성이 그이의 혁명령도의 전 과정에 관통되어있다.

그이의 비범한 령도력은 각 부문별로 본보기들을 련이어 떠올리는데서 찾아볼수 있고 발전지향적인 목표를 끊임없이 내세우고 그를 집행해나가는데서 감득할수 있으며 전면적진흥을 위한 새 령역과 경지를 줄기차게 개척해나가는데서도 체감할수 있다.

새로운 지방발전정책이 제시되어 한해도 못되는 사이에 20개 시, 군에 지방공업공장들이 일떠서고 불과 네해사이에 평양시에 4만 수천세대의 살림집건설이 완공되어 근로자들이 행복의 보금자리를 폈으며 해양국의 자연지리적특성을 살려 명사십리를 우리 식의 해안관광지구로

국력평가의 기준을 두고



조국의 곳곳에 인민을 위한 온실농장과 지방 공업공장들이 건설되고있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을 모르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글 김성경
사진 김영호
조선중앙통신

공화국무력의 절대적힘을 과시하며 나아가는 기계화중대



얼마전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찾았던 나는 그곳 미술소조원들의 그림을 보게 되었다. 그중 하나의 그림앞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누구라 할것없이 활짝 웃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것인데 얼마나 생동한지 화폭속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금시라도 내 귀가에 들리는듯하였다. 그 그림의 제목은 다름아닌 《국력》이었다. 국력이라는 두 글자는 나의 눈뿌리를 자극하였다. 국력! 일반적으로 국력은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담보하는 정치군사력 및 경제기술력, 문명수준의 총체이다. 그래서 흔히 국력을 령토의 크기와 인구수, 군사력과 과학기술력, 자연부원과 지정학적 위치 등을 기본으로 평가하고있다. 그러나 세상을 둘러보면 한때 강대함을 자랑하던 나라들도 극심한 내부모순과 정치도덕적 쇠퇴로 하여 세계적인 국력경쟁의 뒤전으로 밀려나고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객관적, 물질경제적요인이나 일정한 분야에서의 강세가 결코 국력평가의 기준, 국력강화의 요인으로 될수 없다는것을 말해준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력평가의 기준이 인민의 웃음이다. 인민이 없는 국가가 있을수 없는것처럼 인민의 리익을 떠난 국력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제도를 평가하고 국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인민들의 웃음이라고 하시면서 인민들이 얼마나 밝게 웃는가,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얼마나 넘쳐나는가 하는데 따라 국력이 강한가 약한가 하는것이 결정된다고 하시였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민족도 많다. 그중에는 억대의 재부를 자랑하고 경제장성을 떠드는 나라와 민족들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령토가 크고 재부가 많다 해도 나라의 근본인 인민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넘쳐나지 않는 나라를 국력이 강한 나라라고 말할수 없는것이다. 생각할수록 가슴뜨겁다. 오로지 인민의 웃음과 행복을 위하여 모든 사업을 구상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인민이 바란다면 저 하늘의 별도 따오시는 그이의 인민관에 의하여 이 땅에는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있다. 송화거리, 화성거리, 림흥거리, 전위거리를 비롯한 새 거리들과 농촌의 새 살림집들, 지방 공업공장들... 하기에 우리 나라에서는 수도에서부터 저 멀리 심심산골마을 그 어디 가보아도 인민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고있는것이다. 지어낼수도 꾸며낼수도 없는 인민의 웃음. 그렇다. 국력의 강약을 평가하는 기준인 인민의 웃음, 이것이야말로 내 나라에서만 정할수 있는 류다른 기준인것이다.

글 임향심

전민과학기술인재화는 전면적국가부흥의 위력한 남보

전민과학기술인재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대학졸업 정도의 지식을 소유한 지식형 근로자로,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다그치면 강력한 과학기술력량이 준비되게 되며 그에 의거하여 가장 빠른 기간안에 전면적 국가부흥을 이룩할수 있게 된다.

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선진수준에 확고히 올려세워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열쇠는 바로 과학기술인재들의 손에 쥐여져있다.

과학기술인재를 떠나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의 강화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고 현대과학기술지식을 풍부하게 소유한 과학기술인재를 떠나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나갈수 없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는 과학기술로 비약적발전을 이룩해나가고있는 세계적발전추세와 새로운 단계에 올라선 우리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다.

오늘의 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이다.

지식경제시대의 지능로동은 지난 시기와는 달리 교육과

과학연구과정에 체득한 첨단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인재의 로동이다. 지능로동에 의거하는 현시대에는 그 어느 나라나 더 머리좋은 사람, 과학기술인재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데 따라 해당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인재를 어떻게 확보하고 그 대렬을 늘여나가 하는것이 어느 나라에서나 관건적인 급선무로 나서고 있는것이다.

이것을 빠른 시기에 해결하자면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그래야 지식경제시대에 필요한 과학기술인재를 더 많이 키우고 급속히 확대해나갈수 있다.

이미 우리 조국에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할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가능성이 마련되어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소질과 희망, 능력에 따라 마음껏 배울수 있는 교육체계가 수립되고 그것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담보되고 있다. 전체 어린이들과 학생들, 성인들을 교육체계에 빠짐없이 망라시켜 학교전교육과 학교교육, 온갖 형태의 사회교육과 성인교육을 무료로 주고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교육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면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과학기술인재양성사업을 중시하고 시종일관 강화해오고있다.

특히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와 기술전습체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가고있다.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의 규모와 교육기간이 제한되어있으며 교육사업과 사회주의 건설사업을 동시에 밀고나가야 하는 조건에서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만으로는 전민교육을 실현할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려면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를 더욱 확대강화하여야 한다.

공장과 농촌지역들에서는 공장대학과 농장대학을 더 늘이고 교육사업을 개선하며 농촌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에 대한 고등교육을 실시해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기술전습체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가고있다.

전국의 모든 지방들에서 완벽하면서도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오늘 전민과학기술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에 관한 사상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킨다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와 나라의 모든 지역,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동시적이며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간다는것이다.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에 관한 사상은 우선 사회주의건설에서 모든 분야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는것이다.

정치와 국방, 경제와 문화건설은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실현하는데서 다같이 중시하고 해결하여야 할 력사적과제이다. 사회의 모든 분야는 서로 유기적으로 련결되어있는것만큼 정치와 국방, 경제와 문화의 어느한 분야만 중시하여서는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할수 없다. 정치군사적위력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도 경제와 문화를 동시에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전반적국력을 강화해나갈수 있다.

이와 함께 모든 시, 군들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힘있게 다그치는것이다.

시, 군은 나라의 일정한 령역을 차지하고있는 지역적단위인 동시에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부문과 분야의 사업이 종합적으로 진행되는 거점이다. 주춧돌이 든든해야 집이 든든한것처럼 나라의 전반적발전을 떠받드는 기초이고 보루인 시, 군들이 발전해야 사회주의건설이 힘있게 추진될수 있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지방의 세기적락후성을 털어버리는것을 력사적과제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확신성있게 이끌고있다.

인재화실현이 가지는 의의는 날로 더욱 부각되고있다.

현대적인 생산공정들이 확립된 공장들에서 로동자들이 과학기술적으로 준비되어 자기 지방의 특색을 살린 제품들을 만들어내고있으며 농업근로자들은 이상기후현상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극복하며 농사를 안전하게 짓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날 현대과학과 지식, 현대 문명을 모르고서는 한치도 앞으로 전진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이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제시한것은 바로 전체 인민을 지식인화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시였다. 전체 인민의 지식인화!

전체 인민을 혁명적인 사상

중앙이 지방을 부러워하게 하고 지방의 진흥이 공화국의 전진과 발전을 대표하게 하며 지방의 리상적인 면모가 우리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으로 되게 하자것이 오늘날 당의 구상이다. 나라의 모든 시, 군들이 부유하며 문명한 고장으로 전변될 때 공화국의 전면적발전, 전면적부흥은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인민경제전반을 균형적으로, 동시적으로 발전시키는것도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에 관한 사상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인민경제전반을 균형적으로, 동시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자립경제발전의 필수적요구이다. 사회주의경제는 모든 부문이 유기적으로 련결되어있는것만큼 특정한 어느 한두 부문의 진보로는 균형적이고 지속적이며 동시다발적인 발전을 이룩할수 없다. 자립경제건설에서는 특정한 어느한 부문이 100m 앞서나가는것보다 전반이 다같이 손잡고 10m 전진하는것이 더 중요하다. 중공업부문과 경공업부문, 농업부문을 비롯한 경제전반을 다같이 발전시켜야 국가경제의 자립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에 관한 사상은 나라의 모든 분야와 부문, 지역을 다같이 고르게 발전시키며 나아가서 자립, 자존으로 번영하는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울수 있게 하는 혁명사상이다.

글 김지성

글 김일봉

위민첸진의 나날에

관심하신 아동신발의 무게

2015년 1월 어느한 신발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품견본실에 들리시었을 때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남녀별, 나이별, 계절별에 따르는 여러가지 형태의 신발들을 환한 미소속에 돌아보시면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신발, 인민들이 먼저 찾는 신발을 생산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이어 아동춤신들이 전시되어있는 곳에서 여러가지 모양의 깜찍한 아동춤신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신발의 무게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한 일군으로부터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정말 가볍다고 하시며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

그이의 인자하신 모습에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제일 좋고 훌륭한것만을 안겨주시려 그리도 마음쓰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다심한 심정이 어리어있었다.

현대화의 기준

2016년 7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건설한 어구종합공장을 찾으시였다.

종합조종실을 잘 꾸렸다고 치하해주시며 통합생산체계에 대한 해설을 들으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문득 그물생산공정의 어느한 장치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공장의 일군은 먼저 시범적으로 한 기대에 설치하여 운영하고있는데 기대공들이 좋아하면서 저저마다 자기 기대에 이 장치를 도입해달라고 성화를 먹고있다고 무릅없이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현대화는 로동자들이 설비를 운영해보고 좋다고 평가하는 것이 진짜 성공한 현대화라고, 우리는 현대화를 하여도 로동자들이 좋다고 하는것부터 먼저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생산실적보다 더 귀중한것

2016년 여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어느한 공장을 찾으시였을 때 있는 일이다.

무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한 작업장에 이르시자 공장의 일군이 그이의 앞을 막아나섰다.

통풍장치가 되어있었지만 작업장안에서는 염화비닐냄새가 나고있었기때문이었다.

그러는 일군에게 그이께서는 로동자들이 일하는 곳이기때문에 자신께서 들어가보아야 한다고 하시며 작업장안으로 들어서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의 일군들에게 로동자들의 건강을 넘어하시며 통풍설비를 더 보강해줄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그러시고는 생산실적보다 로동자들의 건강이 더 귀중하다고, 자금이 더 들더라도 로동자들이 신선한 공기속에서 로동을 할수 있게 하루이틀 사이에 통풍설비를 더 설치해줄데 대하여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다심하신 사랑의 세계

2018년 6월 어느날이였다.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을 찾으시여 실내못에서 떼지어 오가는 물고기들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른 곳으로 가시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시고 바닥을 유심히 내려다보시였다.

이윽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실내못들의 주변바닥에 타일을 깔았는데 이런데는 봉사과정에 미끄러울수 있으므로 실내용보도블록을 물매지게 깔아주어 물이 인차 빠질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인민들에게 사소한 불편이 있을세라 그리도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웅심깊은 사랑의 세계앞에 동행한 일군들의 가슴은 후덥게 달아올랐다.

도자공예 《모란꽃》

도자공예 《모란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15년 10월 중국에 살고있는 항일혁명투쟁연고자 김순옥의 아들 현종용이 삼가 올린 선물이다.

길이 26cm, 너비 8.5cm, 높이 27.8cm인 접시모양의 선물에는 세송이의 모란꽃이 정교하게 부각되어있다.

선물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계시여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될것이라는것을 예술적으로 잘 보여주고있다.



낮에는 적의 세상, 밤이면 우리 세상

(전호에서 계속)

우리는 셋째섬에 활동기지를 두고있는 왕청 대대 2중대성원 40명과 각 중대들에서 선발된 10명의 지휘관들과 정치일군들로 국내진출대오를 편성하고 박태화소대장과 그밖의 몇몇 대원들로 구성된 선발대를 온성지구에서 파견하였다.

그 당시 동만당조직의 책임적인 자리에 앉아있던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국내로 나가는데 대하여 몹시 신경을 쓰면서 그것을 저지시키려고 각방으로 제동을 걸었다. 그들은 중국령내에 있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조선혁명을 위해 싸우는 것은 민족주의적인 《조선연장주의》 경향이라고 비난하였으며 1국1당제원칙에 모순되는 행위이므로 국내진출도 애당초 단념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나는 민족적임무에 충실한 것이 곧 국제주의적임무에도 충실한 것으로 되며 조선의 혁명가가 조선의 해방을 위해 싸우는 것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권리라는 자기나름의 배짱을 가지고 그들의 주장을 논박하였으며 변함없이 국내진출준비를 하였다.

이런 때에 항일유격대의 국내진출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는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의 분노를 격발시키었다. 국내와의 련계를 위하여 온성지방에 나갔던 2중대의 대원이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자마자 김성도라는 사람에게 체포되어 동만특위로 끌려갔다는 것이었다.

그 당시 2중대장은 안기호였고 정치지도원은 최춘국이였다. 그들은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허둥지둥 마촌에 뛰어와 내앞에서 중대지휘관들도

모르게 유격대원을 함부로 붙잡아간 김성도의 월권행위를 두고 의분을 터뜨리었다.

성미가 첫날색시처럼 얌전하고 마음씨가 비단결같아 남의 흉이라고는 좀처럼 보지 않는 최춘국이 《외눈깔왕가》라는 별명까지 입에 올리며 김성도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지만 나는 함구무언으로 앉아서 그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하였다. 김성도에 대한 파악이 별로 깊지 못하였기때문이었다. 내가 알고있는 것이란 그가 공청동만특위 선전부장으로 활동하다가 동만당 특위로 갓 소환되어온 사람으로서 각 현으로 순시를 다니는 중이라는 것뿐이었다. 동만당조직에서는 상급조직의 간부들이 하부조직을 돌아다니며 지도사업을 하는 것을 순시라고 하였다.

나는 최춘국이 김성도를 이름대신 상스러운 별명으로 부르는 것이 마음에 걸리어 그를 엄하게 꾸짖었다.

《춘국동무, 동무는 언제부터 다른 사람들을 이름대신 별명으로 부르는 고약한 버릇을 배웠소? 김성도라는 사람이 우리를 무시하는 탈선행위를 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동무한테는 그래 그의 인격을 존중해 줄 만한 아량도 없단 말이요?》

최춘국은 비판앞에서 허심한 사람이였다. 그는 얼굴에 심각한 표정을 담고 송구스럽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 언행이 조금이라도 불손했거나 무례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유격구도 인간들이 모여사는 곳이니 별명이 없을 수 없겠지. 그런데 그 별명은 너무도 야비하구만. 외눈깔이라고 하다니...》

나는 김성도가 2중대의 대원을 체포해간 것보다 당장은 왕청사람들이 그를 《외눈깔왕가》

라고 부르는 사실에 더 화가 났다.

어제서 김가를 왕가라고 하는가고 물으니 최춘국은 조선사람인 김성도가 중국사람냄새를 너무 내고 간부들앞에서 지나치게 굽실거리는 것이 아니꼬워서 간도사람들이 그에게 《왕가》라는 성을 붙여준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동만특위로 가던 길에 현당에 잠깐 들렀더니 거기서도 김성도를 이름대신 《외눈깔왕가》라고 부르는 것이였다.

현당사무실에서 리용국이 나에게 들려준 말에 의하면 김성도는 1927년에 벌써 조선공산당에 입당하여 화요파 만주총국의 어느 세포위원을 하다가 일본령사관 경찰에 체포되어 매도 맞고 감옥밥도 먹어본 로당원이라고 하였다. 감옥에서 풀려나온 후에는 재빨리 중국당에 전당하여 특위급간부로 승진되었는데 훑아빠진 한쪽눈의 허물을 감추느라고 그러는지 늘 색안경을 끼고 다부산자차림으로 다닌다는 것이였다.

리용국은 김성도를 《날아가는 까마귀발에 버선이라도 신길수 있는 수완가이고 변설가》라고 평가하였다.

나는 동만특위사무실에서 3시간쯤 김성도와 담화를 하였다.

정작 마주앉고보니 그의 월권행위를 문책하려던 결심은 뒤전으로 밀려나고 측은한 감정부터 앞섰다. 훑아버린 눈과 몹시 지친듯해보이는 퍽퍽한 얼굴표정으로부터 환기된 동정심때문이였을지도 모른다. 한쪽눈의 실명이라는 불우한 신체적조건을 무릅쓰고 간도의 험산준령을 넘나들며 혁명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은 얼마나 장하고 눈물겨운 일인가.

《순시원동무, 동무는 우리와 토론도 하지 않고 무슨 리유로 공작중에 있는 유격대원을 함부로 체포해갔소?》

나는 음성을 높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레절있게 물었다.

김성도는 안경너머로 나를 유심히 보았다. 언감특위순시원도 몰라보고 당돌하게 문책을 들이대느냐고 사뭇 못마땅해하는 듯한 눈치였다.

《그런 질문을 받는다는데 참 이상하구만. 그 대원의 월경이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모순되는 민족주의의 표현이라는 걸 모를리 없겠는데... 우린 그를 〈민생단〉으로 보고있소.》

《무슨 근거로?》

《조선에 갔다왔으니 민족주의인 것이고 민족주의적소유를 범했은즉 그거야 〈민생단〉이 아니고 뭐겠소.》

《그게 동무의 생각이요?》

《그렇소. 나의 상급도 그렇게 보고있소.》

나는 김성도가 이런 대답을 하였을 때 그가 껄뻐하다는 생각보다도 가련하다는 생각이 앞서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였다. 아무런 과학적 타당성이나 진리성도 없는 망발에 분노를 표시하고 최망치와 같이 드센 논리로 그 망발의 부당성을 립증해야 할 그런 정황에서 분노와 경멸 대신 일종의 동정심이 발동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김성도가 지니고있는 허황한 편견과 유치한 사고방식이 동만특위순시원이라는 요란한 직급과 대조를 이루면서 그를 더욱더 가련한 존재로 보이게 하였던 것 같다.

(다음호에 계속)



조선로동당창건 80돐에 즈음하여 재일, 재중동포들 총성의 편지이어달리기 진행

지난 10월 조선로동당창건 80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삼가 올리는 총성의 편지를 채택하는 대회와 모임이 해외에서 진행되었다.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가 일본 도쿄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박구호제1부의장 겸 조직국장을 비롯한 총련중앙 일군들, 중앙단체, 사업체 책임일군들, 간또지방의 일군들, 총성의 편지이어달리기대표단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박구호제1부의장 겸 조직국장이 조선로동당창건 80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삼가 드리는 총성의 편지를 정중히 랑독하였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총성의 편지가 대회 참가자들의 우렁찬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앞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 삼가 드리는 총성의 편지를 채택하는 대회들이 총련의 각

지방본부들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창건 80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



총련합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삼가 올리는 총성의 편지를 채택하는 모임이 중국 길림육문중학교에서 진행되었다.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과 부의장들을 비롯한 총련합회 일군들, 산하조직대표들, 총성의 편지이어달리기대표단 성원들,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령사관 일군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삼가 드리는 총성의 편지를 최은복의장이

정중히 랑독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일심으로 받들어어나가는 존엄높은 공화국의 해외공민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나갈 총성의 결의를 다지었다.

리판일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창건 80돐 경축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총성의 편지이어달리기대표단과 동주봉 사무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창건 80돐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총성의 편지이어달리기대표단이 10월 2일과 4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총성의 편지증정모임이 10월 7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총성의 편지들을 간직하고 평양에 도착한 편지이어달리기대렬들이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증정모임장소인 김일성경기장에 들어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삼가 올리는 국내와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총성의 편지들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에게 정중히 전달되었다.

글 김일봉

사진 김성철, 조선중앙통신

정이 든 명사십리

-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단,
제2차 재중조선공민자녀방문단 -



자연풍치가 아름답고 바다기슭을 따라 10리나 되는 모래불이 펼쳐져있는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뛰어난 경관으로 일러오고있는 갈마반도의 명사십리.

지난 8월 조국을 방문하였던 재중동포들이 해안 명소로서 특유의 모습을 펼친 원산갈마해안관광 지구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었다.

동포들은 하얀 손수건을 담그면 그대로 푸른

물이 들것만 같은 조선동해의 물결에 몸을 잠그었는가 하면 물스키며 고속보트, 수상자전거를 타고 바다를 헤가르며 탄성을 올리기도 하였다.

명사십리아외물놀이장에서 다양한 기재들에 흠뻑 빠져들어 아예 떠날념을 하지 않는 동포들이 있는가 하면 모래터배구장에서 배구에 여념이 없는 동포들도 있었다.

오락관, 오락장들에서도 동포들은 흥미진진한 오락들에 심취되어 시간가는줄 몰랐다.

방영선동포는 한쪽의 그림같다는 말로는 너무도 모자란다, 조선동해의 맑은 물과 기슭을 따라





여러가지 유희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0리나 펼쳐진 아름다운 백사장, 주변환경에 어울리는 다양각태의 호텔들과 러관들, 봉사건물들은 정말 황홀하다, 정이 들어 떠나고싶지 않다고 이야기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사무국장 동주봉동포는 명사십리가 인파십리로 되었다고, 이것은 인민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는 조국에서만이 펼칠수 있는 풍경이라고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글 엄향심, 사진 김영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 보낸 나날을 기념하여

인상기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이번에 나는 소원을 이루었다.
그렇게도 가보고싶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낸것이다.

원산갈마해안관광 지구는 아름다운 바다가정서와 유명한 갈마반도의 풍치, 예술적조화로 보기만 해도 눈이 부셨다.

나는 이곳에서 조선동해의 푸른 물에 몸을 잠그고 해수욕도 하고 고속관광유람선을 타고 바다를 누비는 짜릿한 쾌감을 맛보기도 하였으며 물놀이유희기재들을 리용하면서 물보라를 날리기도 하였다.

나뿐 아니라 동료들 누구나가 다 좋아하였다.
해안관광지구의 어디 가나 웃음소리가 넘쳐였다.

나는 여기서 행복의 무아경의 의미를 다시 알게 되었다.

조국인민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 그칠새 없는 바다가에서 나는 저도 모르게 노래 《산으로 바다로 가자》를 불렀다.

노래를 부르느라니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로고를 바쳐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민헌신의 나날이 떠올라 절로 눈곱이 젖어들었다.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 큰일을 구상하시고 설게 해나가는 그이의 령도에 의하여 이 땅에는 희한한 별천지들이 펼쳐지고있는것이다.

하기에 우리 동포들은 수수천년 바다도 그 바다이고 산천도 그 산천이건만 이렇듯 눈부시게 천지개벽시켜 인민에게 주신 절세의 애국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 삼가 머리숙여 인사드리고 싶은 심정이다.

아울러 그이의 뜻을 받들어 류레없는 도전과 시련을 헤쳐 세계가 경탄해마지 않는 전변을 안아온 조국인민들에게도 경의를 드리고싶다.

밤은 깊어가도 황홀한 야경이 펼쳐진 해안관광 지구는 사람들의 명랑한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로 잠들지 못하고있다.

나 역시 잠들수 없어 이런 시를 지었다.



옛적부터
하얀 모래 십리 펼쳐
그 이름도 명사십리

동해에 솟는 해
에서 먼저 안아보고
백사장에 덩굴던 몸
파도에 씻어보니
이 아니 좋을소냐
천하절승 예로구나

금수강산 반만년에
바다도 그 바다
반도 또한 그 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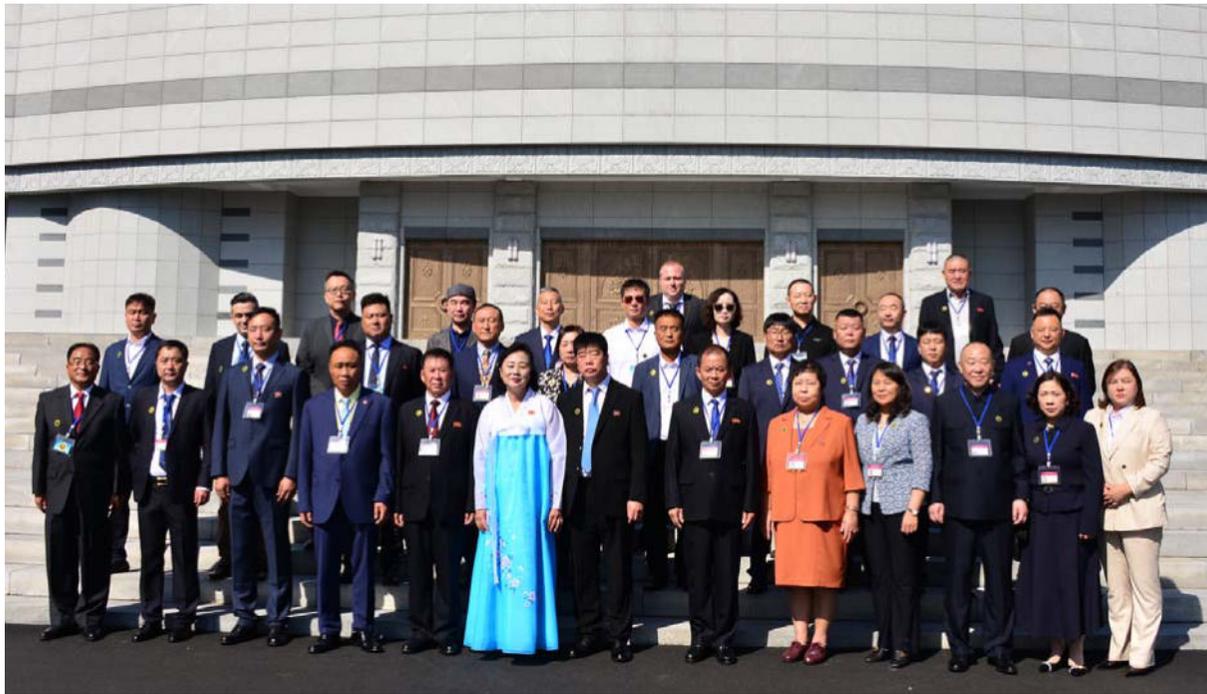
인민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옮겨 땅우에 펼쳐주는
위대한 그 사랑이 안아온 별천지

무심히 밟지 말라
백사장 모래불에
절세위인 헌신로고 그 자욱 새겨있고
숙소의 포근한 잠자리는
아버이의 따스한 체온 그대로여서

낮은 낮대로 충격
밤은 밤대로 감동
사랑하노라 명사십리
자랑하노라
아름답고 위대한 내 조국의 인파십리여

재중조선인청년협회 국장 김송미

잊지 못할 나날들



김일성김정일기금총회대표단 성원들 국가선물관 참관

지난 10월 김일성김정일기금 총회-2025에 참가하였던 동포 회원들이 한결같이 터친 목소리가 있다.

《정말이지 이번 고국방문

은 평생을 두고 잊을수 없을것이다.》

방문의 나날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고국에서 체험한 모든

것은 동포들의 가슴속에 인생

의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되었다.

누구나가 감격을 터친것처럼 이번 기금총회는 조선로동당 창건 80돐 경축행사들이 진행된 시기에 소집된것으로 하여 그 의미가 더욱 부각되었다.

동포들은 성황리에 진행된 조선로동당창건 80돐 경축대회와 열병식, 군중시위, 해불야회 등을 보았다.

그들은 행사가 진행되는 전 기간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리르며 감격에 겨워하였다.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하는 열병식과 당의 령도 따라 일심단결의 대오를 이루고 나아가는 인민들의 모습을 보며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평양애육원 참관



옥류아동병원 참관

김일성김정일기금총회에 참가한 동포들은 자기들이 이토록 큰 행사에 불러 평생을 두고 잊을수 없는 소중한 추억을 안겨준 고국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태권도전당에서 동포들은 태권도선수들의 시범출연을 관람한 후 청팀과 홍팀으로 나뉘어 다채로운 체육유희오락 경기를 진행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였다.

글 연옥, 사진 리영철

확신을 더욱 가지였다.

경축행사장들에서만이 아니였다. 동포들은 주체사상탑의 전망대에 올라 아름다운 평양시의 전경을 부감하였다.

개신문, 당창건사적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은 동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당창건위업과 전승업적 등에 대한 해설도 주의깊게 들었다.

그들은 평양육아원과 평양애육원, 평양양로원에서 부모없는 아이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을 당과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따듯이 보살펴주고있는 현실을 목격하였다. 동포들은 육아원에서 저저마다 원아들을 품에 안고 사진을 찍었으며 양로원에서는 로인들과 어울려 흥겹게 춤도 추었다.

김일성김정일기금 회원인 재중동포 김경림은 전체 인민이 누구라없이 밝게 웃으며 생활하고있는 모습을 보면서 인민대중 제일주의가 그 어떤 말이나 글로써가 아니라 고국땅에 현실로 펼쳐져있다고 감격에 넘쳐 말하였다.



김일성김정일기금총회-2025 참가자들의 친선련환모임 진행



기념품매대를 찾은 해외동포들

나라가 강하고 흥함은...



김일성김정일기금 회원
재중동포 림근남

아직도 조선로동당창건 80돐 경축행사장들에서 받은 흥분이 나의 마음속에서 가라앉지 않고있다.

이국땅에서 나서자란 내가 선조의 뼈가 묻힌 고국에 처음 발을 내디딘 때로부터 30년이 가까와오지만 이렇게 큰 국가행사에는 처음 참가하였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고 당창건 80돐을 맞으며 진행된 경축대회와 열병식, 군중시위 및 화불야회 등에 참가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나를 더욱 격동시킨것은 김일성김정일기금총회-2025에 참가한 우리모두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몸가까이 모시고 진행된 행사에 영광스럽게 참가한것이다. 환하신 미소로 인민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고 연설들의 구절마다에 인민을 위한 진정을 담으시는 그이는 진정 인민의 령도자이시다.

얼마나 멋진분이신가. 오직 인민밖에 모르시는 위대한 령도자를 고국인민들뿐 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도 흠모하며 존경하고 있다.

이번 고국방문을 통해 나는 나라가 강하고 흥함은 결코 령토의 크기나 자원의 풍부함, 경제력에 있지 않다는것을 더욱 느끼게 되었다.

오늘도 서있는 력사의 집

지난 10월 고국땅에 도착한 날 나는 TV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80돐을 맞으며 당창건사적관을 찾으시고 뜻깊은 기념연설을 하시였다는 보도를 시청하였다.

그로부터 며칠후에 나는 그 력사의 집을 참관하였다.

당창건사적관은 장구한 세월의 흐름에도 당의 창건사를 고이 간직하고 옛 모습그대로 서있는 조선로동당의 고향집이라고 생각 되었다.

80년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조국에 개선하신 후 바로 이곳에서 당을 창건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나무로 만든 보통 책상과 의자들로 매우 검소하게 꾸려져있는 집무실에서 당의 강화 발전과 정권건설, 민주개혁을 비롯한 많은 사업들을 조직령도 하시였다고 한다.

나는 력사의 집을 참관하며 조선로동당이 무엇으로 강하고 어떻게 되어 세계최장의 집권사를 기록하게 되었는가를 다소나마 알게 된것같다.



김일성김정일기금 회원
재중동포 장국화

B120-7/7형



B96-5/4형



바 안

바 안	선률단추수	변음기건수	성 부	음 역	반주단추수	변음기건수	길이×높이×너비	무 게
B120-7/7형	(96)58	7	저음, 중음, 고음	G ₂ (솔 ₂)-E [#] (미 [#])	120	7	442×451×250	12.56
B96-5/4형	(67)37	5	저음, 중음, 중음	G ₁ (솔 ₁)-G [#] (솔 [#])	96	4	394×376×230	8.7
B96-3/2형	(76)46	3	중음, 중음	E ₁ (미 ₁)-C [#] (도 [#])	96	2	399×378×200	7.83
B96-7/4형	(76)37	7	저음, 중음, 중음	G ₁ (솔 ₁)-G [#] (솔 [#])	96	4	394×370×230	8.87
B76/96-3/0형	(76)46	3	중음, 중음	E ₁ (미 ₁)-C [#] (도 [#])	96	0	400×376×192	7.55

B96-3/2형



B96-7/4형



B76/96-3/0형





부모의 꿈을 조선보석회에 담이

나는 부모님이 이루지 못했던 꿈을 실현시켜준 조국, 그 조국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변색없는 조선보석화에 담아가겠습니다.

지난해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6돐경축 국가미술전람회에서 특별히 눈길을 끈 작품이 있었다.

조선보석화 《전위거리의 밤》이었다. 새로 일떠선 전위거리의 80층살림집을 비롯하여 특징적인 건물들이 살아나게 하면서도 명멸하는 불빛과 더불어 아름다운 밤풍경을 형상한 작품은 사람들의 찬탄을 불러일으켰다.

《조선보석화가 정말 맞는가?》

《보석화로 80층살림집을 형상하기 어려웠겠는데 섬세하면서도 정교하게 묘사하였다.》

그림은 전시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국가소장품으로 되었다.

그림을 창작한 만수대창작사 조선보석화창작단 실장 강태홍의 이름은 전시회가 끝난 다음에도 한동안 사람들의 화제거리로 되었다.

강태홍실장은 평양미술대학에서 조선화를 전공할 때부터 진실한 형상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하여 강태홍의 얼굴은 미처 몰라도 그의 이름은 동창생들뿐 아니라 하급생들의 기억속에 남아있게 되었다.

졸업후 만수대창작사 조선보석화창작단에서 일하게 된 그는 보석화의 신비로움에 마음이 끌리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선명하고 부드럽고 우아한 색채의 조화, 섬세하고 정교한 기법과 다양한 재료의 배합에 의한 현란하고 신기한 장식적효과 등 회화적수법과 공예적수법의 유기적결합 등은 조선보석화의 뛰어난 예술적특성이었다.

그는 다시 배운다는 자세에서 굽기, 뿌리기 등 보석화의 기법들을 하나하나 터득해나갔다. 노력한 보람이 있어 그는 기백있고 대담한 필치와 생동한 묘사력으로 《밀림》, 《봄향기》, 《소백수의 물소리》, 《리명수폭포》 등 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그중 조선보석화 《소백수의 물소리》는 2006년 전국풍경화전람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당시 전문가들은 조선보석화 《소백수의 물소리》에서 미술가의 남다른 기법을 보았다고 평가하였다.

강태홍실장은 이 그림을 창작하기 위하여

백두산을 여러번이나 편답하였으며 소백수의 정갈한 물을 보석화로 형상하기 위하여 고심도 많이 하였다.

지칠줄 모르는 노력으로 그는 항상 우수한 작품을 내놓곤 하였으며 그렇게 창작된 작품들의 대부분은 국가소장품으로 되었다.

그는 로씨야, 중국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들에서 현지창작을 진행하였으며 조선보석화의 매력을 증가시키었다.

그는 자기의 심중을 이렇게 터놓았다.

《사실 미술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꿈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부모님은 그렇게도 미술을 하고싶었지만 그 꿈을 이룰수 없었습니다. 조국의 품에 안긴 후 부모님은 자기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들이 이루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삼형제는 모두가 미술가가 되었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이루지 못했던 꿈을 실현시켜준 조국, 그 조국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변색없는 조선보석화에 담아가겠습니다.》

글 엄향심, 사진 리영철



장기격언

귀포와 상먹은 늘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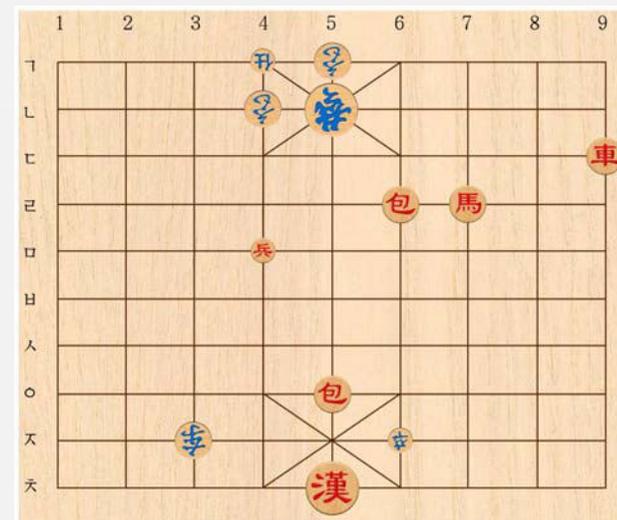
이 말은 상대방이 말귀포를 놓았을 때 역할을 하지 못하게 자기의 차로 제압해야 하며 또한 자기의 차가 상대방의 중심에 들어갔을 때 상대방의 상(안상위치에 있을 때)먹을 누르고있어야 궁성공격에 유리하다는것을 뜻하고있다.

반대로 상대방의 차가 자기 구역에 들어오면 자기의 포 또는 상이 늘리우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교훈적인 의미도 담고있다.

장기수풀이 (34)에 대한 답

ㄱ4차ㄷ4, ㄱ4사ㄴ5, ㄱ5말ㄷ6, ㄴ8차ㄴ6, ㄷ6말ㄷ7, ㄴ6차ㄴ7, ㄷ4차ㄴ5 《장훈》

장기수풀이 (35)



붉은색쪽이 먼저 써서 푸른색쪽을 이겨야 한다.



고향소식

어제 날의 약수고장이 지방발전의 전철에 섰다

황해남도 은천군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유명한 초정약수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국가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초정약수는 1580년대에 발견된 때로부터 뛰어난 약효성분으로 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광범히 이용되어왔다.

하기에 은천군에 태를 묻은 중국 길림성에서

살고있는 김대건동포도 초정리에서 농장원으로 일하고있는 김정수조카에게 편지를 보낼적마다 초정약수의 독특한 맛을 그려보군 한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오늘 은천군은 유명한 초정약수만이 아닌 조선로동당의 지방발전정책에 의해 일떠선 지방공업 공장들의 준공소식이 전해진 때부터

사람들속에 더욱 알려지게 되었다.

올해초 준공된 은천군 지방공업 공장들은 군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뚜렷한 자리매김을 하고있다.

은천군식료공장에서서는 제품의 질제고에 선차적인 힘을 넣는 한편 인민들이 선호하는 식료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 목표를 내세우고 제품의 품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결과 최근 몇달어간에만도 맛있는 생강고추장, 깨고추장, 단설기, 단고구마단목을 비롯한 30종에 70여가지의 식료품들을 생산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갖추어놓고 군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있다.

강호철책임기사의 말에 의하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은 모두가 은천군지방에서 나오는 원료를 가지고 만든것으로서 가격이 높고 질적지표에

서 중앙제품들 못지 않다고 한다.

은천군일용품공장에서도 질 좋은 빨래비누와 이불장, 옷장을 비롯한 기본생산지표외에 물비누와 린스, 샴푸, 가루비누, 그릇세척제 등 여러가지 비누제품들과 각종 목제품들을 새롭게 개발생산하여 인민소비품의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하고있다.

은천군 읍 147인민반에서 살고있는 류설희녀성은 《새로 받은 집에 군일용품공장에서 만든 가구들을 갖추어놓았습니다. 사용에도 편리하고 보기도 좋아 린접군에 시집을 간 딸에게도 보내주었습니다. 그때 사돈집사람들은 보내준 가구들이 은천군에서 생산한것임을 알고는 펍 놀라와하셨습니다.》라고 기쁨에 겨워 말하였다. 주민들의 기호와 나이별, 계절별, 남녀별



제품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는 은천군 지방공업 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특성에 맞게 만든 은천군옷공장의 피복제품들도 다양하고 세련된것으로 하여 지난 4월에 진행된 봄철 피복전시회-2025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은천군상업관리소 소장 조일순의 말에 의하면 이 공장에서 생산되어나오는 피복제품들은 군안의 상업봉사망들에서 인기제품으로 되고있다고 한다.

이뿐이 아니다.

은천군에서는 교장의 지리적조건과 자연부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군주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고있다.

최근년간 군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대동강

물을 리용하여 현대적인 양어장을 새로 건설한것은 물론 농업군의 실정에 맞는 논판양어를 받아들여 해마다 많은 메기와 알곡을 거두어들이고 있다. 뿐만아니라 읍지구에 온천자원을 리용한 편의봉사시설들도 꾸려놓아 주민들의 건강과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고있다.

행복한 생활을 지향해가는 은천군은 약국, 농촌문화주택들도 번듯하게 일떠세우고있다.

참으로 지난날 약속고장으로만 알려졌던 은천군이 지금은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눈에 띄는 진전을 이룩하고있다.

글 김지성, 사진 리영철



은천군탁야소에서



은천군병원에서



각종 조명기구들을 생산



《경주》상표를 단 각종 조명등들이 사람들의 생활속에 깊이 자리잡고있다.

제품은 락랑구역에 위치하고있는 경주조명전기 기구공장에서 생산되고있다.

공장에서는 수도와 지방에 해마다 새로 일떠서는 살림집들과 지방공업공장들을 비롯한 건축물들에 설치할 각종 규격의 레드장식등들을 생산하여 보장하고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들속에서는 조명제품들의 양상이 현대적이고 민족적이면서 품질이 우수한것으로 인식되었다.

공장에서 생산되고있는 제품들은 장식무리등, 장식벽등, 장식천정등을 비롯해서 수백종에 천여가지가 된다.

2001년에 발족한 공장은 지난 기간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여 다양한 레드등들을 생산해오면서 나라의 조명산업을 앞장에서 개척해나가고 있다.

공장에서는 인재를 찾아내고 키우기 위한 사업에 힘을 들여 생산과 기술발전에서 성과를 이룩하였다. 세계적추세에 맞는 생산능력이 큰



레드등생산공정이 갖추어졌으며 공장의 기술발전 계획을 담당수행할수 있는 든든한 연구력량도 꾸려졌다.

연구와 생산이 일체화됨으로써 새 제품개발 사업이 마음먹은대로 진척되었으며 이 과정에 공장제품들은 국내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축전과 전시회, 발표회들에서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조명기술연구소 소장을 겸임하고있는 기사장 박사 박광서는 《반복은 연구사업에서 철저한 금물이다. 제품의 다양화, 다종화, 다색화를 실현하며 세계적인 조명기술을 따라앞서자는것이 우리의 목표이다.》라고 말하였다.

수십명의 젊고 쟁쟁한 연구사들로 구성된 연구소는 조명의 양상과 배치설계, 회로연구, 조명기구제작설계 등에 힘을 넣어 최근년간에도 10여건의 과학기술성과를 내놓았다.

공장에서는 경공업제품전시회 《경공업 발전-2023》에 풍력-태양빛결합전력생산체계를 도입한 조명제작기술을 내놓아 최우수상을, 전국 가구 및 마감건재부문 과학기술성과전람회-2024에 무리등과 정원등, 야외기동식벽시계를 비롯한 각종 레드조명등들을 출품하여 특등상을 수여받았다.

공장은 다른 나라 기업들과의 다방면적인 기술교류와 협력사업도 중시하며 국내의 조명산업 발전을 적극 추동해나가고있다.

글 김성경
사진 김영호





호평받는 《류원》 신발들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있는 일군들과 종업원들

등산을 하거나 체육활동을 할 때 조국인민들은 《류원》상표를 단 운동신발을 즐겨 신군 한다.

그만큼 《류원》신발은 인기있는 제품이다.

이 제품들은 류원신발공장에서 생산되고있다.

1988년에 첫걸음을 내짚은 공장에서는 인민들이 좋아하고 대중의 기호와 미감에 맞는 갖가지 운동신발들을 전문적으로

개발생산하고있다.

이곳에서는 신발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실현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새 제품개발을 주동적으로 내밀고있다.

각이한 기호와 미감에 맞게 모양과 색깔에서 새로운 형식의 신발들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생산을 정상화한다는것이 결코 험한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장에서는 새 제품들을 마음

먹은대로 내놓고있다.

공장의 관리일군, 기술일군들만이 아니라 평범한 종업원들모두가 공장의 주인이라는 관점에서 생산활동에 립하고 있으며 주 2차이상 진행되는 품평회에도 참가하고있다.

도안가들은 백화점들과 여러 상업봉사단위에 나가 인민들의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어떤 형태와 색깔의 신발을 찾는가를 빠짐없이 장악하면서 정기적으로 한가지이상의 도안을 내놓고있다.

공장에서 진행되는 도안창작현상응모에 모두가 참가하는데 우수한 도안을 내놓는 사람들을 평가해주고 적극 내세워주고있다.

이 과정에 공장에 없어서는 안될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뿐만아니라 자동재단기를 비롯하여 설비현대화도 힘있게 내밀었다.

신발창형타생산공정과 형갈제작공정들을 혁신하여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실리를 볼수 있게 하였다. 하여 신발창

형타의 정밀도와 생산성은 종전보다 훨씬 높아지게 되었다.

전국적인 신발전시회들과 2024년 인민경제 중요부문 공장, 기업소들사이의 사회주의경쟁총화 등에서 류원신발공장은 언제나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고있다.

지난해에만도 공장에서는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직종별, 나이별, 계절별에 따르는 170여종의 새 제품을 개발생산하였다.

리은혁기사장은 《우리가 만드는 운동신들을 인민들이 선참으로 찾는 제품으로 되게 하자것이 우리의 목표이다.》라고 말하였다.

2015년과 2017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공장을 찾으시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신발, 용도가 여러가지인 신발, 인민들이 먼저 찾는 신발을 생산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글 김슬기
사진 김성철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의 일부

미래의 설계가들

- 평양건축대학에서 -



설계형성안 《창조형산업과 도시공간의 결합》을 제출하여 1등상을 수여받은 건축1학부 학생 최은주와 지도교원 리예건

설계형성안 《물경관과 결합한 건축공간구성》을 제출하여 최우수상을 수여받은 건축1학부 학생들과 건축학연구실 연구사 엄성혁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올해 5월 28일까지 로씨야의 아스트라한시에서는 《지적으로 발전된 청년들의 잠재력을 과학과 교육발전으로》의 주제로 인터넷화상방식의 건축 및 도시건설부문 국제연구설계경연이 진행되었다.

아스트라한국립건축건설종합대학의 주최로 진행된 이번 설계경연에 평양건축대학의 대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이들은 11건의 설계형성안들과 과학론문을 경연에 제출하여 1건의 최우수상과 7건의 1등상을

쟁취하였다.

건축1학부 학생 오성우의 4명이 제출한 설계형성안인 《물경관과 결합한 건축공간구성》이 가장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형성안은 다양한 형태의 물경관을 중심으로 독특한 건축미를 가진 초고층, 고층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있는 현대적인 도시설계형성안이다.

세계적발전추세의 하나로 되고있는 룩색도시, 생태도시설계를 구상한 오성우는 물자원을

리용하여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생태환경과 정서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설계의 중심을 두었다.

오성우와 조에 속한 대학생들은 과학적인 설계원리와 다양한 수법으로 여러가지 조형적느낌을 주는 물경관건축공간을 하나하나 설계해나갔다.

매 살림집구획과 공원구획, 물경관들을 비반복적이고 현대성, 예술성이 잘 살아나게 하기 위해선 하나, 점 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이었다.

형성안은 착상이 좋고 건축묘사수준이 높은것으로 하여 가장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건축1학부 학생 최은주가 제출한 설계형성안 역시 심사성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설계형성안 《창조형산업과 도시공간의 결합》은 1등으로 평가되었다.

《오늘날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창조형산업은 도시의 산업구조와 공간구조를 부단히 변화시켜 새로운 형식의 도시공간인 혁신지구를 출현시키고있다. 도시건축의 세계적인 동향은 내 마음을 끌어당겼다.》라고 최은주는 말하였다.

창조형산업을 종자로 찾아낸 그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여러 나라 혁신지구들의 도시형태학적 분석과 작용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는 과정에 현대산업과 살림집, 교육 및 문화시설, 공원 등 다양한기능을 가진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조화롭게 결합된 새로운 형식의 도시를 착상하게 되었다.

《착상이 기발하고 형태와 비례에 대한 감각이 좋으며 문제처리가 빠른 최은주학생은 이번 경연에서 자기의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라고 지도교원 리예건은 말하였다.

특색있는 건축군들과 공중화원, 고가다리 등 건축물들과 전형적인 창조형산업들이 도시공간과 조형예술적으로 결합된 리상적인 도시공간설계는 건축내용들이 새롭고 독특한것으로 하여 높이 평가되었다.

이밖에도 《생물기후특성을 고려한 농촌주택지구 건축계획 및 설계》와 《상징건물에 의한 예술적호상성, 호환성, 련결성보장수법에 대한

연구》 등 4건의 설계형성안들도 1등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경연에서 심사를 맡았던 실장 리운광은 자기의 견해를 이렇게 피력하였다.

《건축에서는 절대적인 표본이나 기준이 없다. 세계적인 건축발전추세에 민감하고 부단히 새것을 탐구해나갈 때 세계가 인정하는 건축인재가 될수 있다고 본다. 이번 경연은 학생들이 자기들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게 한 좋은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국제경연들에 적극 참가하여 세계적인 건축인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것이 이곳 대학의 교원, 학생들의 야심이고 배짱이다.

글 김성경
사진 리영철

건축1학부 학생 오성우의 4명이 제출한 설계형성안 《물경관과 결합한 건축공간구성》



첨단기술제품개발에 힘을 넣어



편광을 리용한 치료방법은 비약물적, 비침습적방법으로 병을 치료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오늘 날 세계적으로도 하나의 추세로 되고있다.

최근 위성첨단기술제품생산소에서 개발, 생산하고있는 근적외선편광치료기에 대한 관심이 국내 여러 보건단위에서 높아가고있다.

근적외선편광치료기에서 발산되는 편광은 혈액을 정화시키는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특이한 치료작용을 한다.

이 치료기의 우점은 혈액순환개선과 세포재생, 항염증, 살균 및 억균, 면역제고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것으로 하여 내과 및 외과적질병뿐 아니라 안과질병치료 등 적용범위가 매우 넓은것이며 특히 약이나 수술적방법으로 잘 낫지 않는 난치성질병치료에서도 효과를 볼수 있다.

근적외선편광치료기를 리용한 새로운 치료방법들이 림상실천에 널리 리용되면서 현재까지 1만여명의 각이한 환자들에 대하여 98%의 완치률을 기록하였다.

치료효과성이 높고 조작이 단순한 이 의료기구는 지금 시안의 각급 치료에방기관들과 가정세대들에서 널리 리용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편광을 리용한 의료

기구를 제작한 이곳 기술집단은 여러 차례의 기술갱신과 충분한 림상검토를 거듭하는 과정에 편광치료효과를 최대로 볼수 있게 하는 근적외선편광기술을 확립한데 이어 치료기를 완성하였다.

연구와 생산이 일체화된 생산소에서는 이밖에도 최근년간 많은 연구성과를 내놓아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있다.

생물공학적방법으로 만든 나무영양액과 인쇄잉크분산제, 강한 청정작용을 나타내는 초미세기포활성수 등 개발된 첨단기술제품

들은 여러 축전과 전시회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현재 현실에 도입되어 은을 내고있다.

특히 소장 박광일이 직접 연구개발한 초미세기포활성수와 관련한 논문은 2022년 5월 네델란드의 국제잡지 《계산 및 리론화학》에 실려 국제과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나를 개발해도 세계적인 기술제품으로 되게 하자는것이 이곳 집단의 목표이고 지향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회의소 회원으로 등록된 생산소는 현재 더 높은 개발목표를 정하고 적극 노력하고있다.

글 김성경, 사진 리영철



오늘 생물산업은 미래의 기둥산업으로 인정되고있으며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기술과 같은 첨단과학기술들이 융합된 생물수감기술에 대한 연구는 날로 중요시되고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생물의학공학부 생물수감연구실은 이 연구분야에서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단위이다.



생물수감기술연구에 심신을 바쳐

생물수감연구실은 최근 5년동안에만도 생물수감기술이 도입된 8종의 검사설비들을 연구개발하고 현실에 도입함으로써 나라의 방역토대강화에 이바지하였다.

그중에서도 국내에서 진행된 여러 전시회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전기화학식생물수감기는 방역실천에서 의의가 큰것으로 하여 현재 보건부문에서 광범히 리용되고있다.

김광일실장의 말에 의하면 이 생물수감기를 개발하자면 높은 수준의 전자자동화요소들이 안받침되어야 하고 장치구동프로그램과 조작체계도 개발해야 하는 등 어려운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대부분 연구자들이 20대, 30대의 청년들이므로 하여 연구집단이 이 개발을 결심하였을 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들리었다.

그러나 김광일실장과 김효향, 전진혁, 로광호, 홍명광, 김현순 연구자들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연구개발에 달라붙었다.

생물수감기개발과 관련한 한 세계적인 추세들과 선행연구자료들을 조사분석하면서 연구자들은 국내실정에 적합한 생물수감기를 개발하기 위해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였다.

시작부터 많은 애로와 난관이 앞을 막아나섰지만 연구자들은 모든것을 인내하며 오직 검사설비개발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줄달음쳤다.

한달만에 모든 기술적지표들을 선진수준에 도달시킬수 있는 최량화된 설계를 작성한 연구자들은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연구에서 난문제로 나서고있던 장치구동프로그램과 조작체계도 손색없이 완성하였다.

지칠줄 모르는 열정으로 이어진 탐구의 낮과 밤이 흘러 6개월만에 연구자들은 모든 연구지표를 완결하고 마침내 전기화학식 생물수감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새로 개발한 전기화학식생물수

감기는 마이크로크기의 생물개체나 생화학물질분자의 미세한 전기 화학적거동을 수감하여 정량분석하는 기구로서 실시간PCR장치에 의한 핵산검사보다 검사시간이 1/20이나 짧고 검사비용을 훨씬 절약할수 있었다.

소형화되어 휴대가 간편한 이 생물수감기는 병원성세균이나 비루스를 신속정확히 검출함으로써 그 감염여부를 판정하는데서 아주 효과적이였다.

새로운 생물수감기개발을 통하여 풍부한 경험을 쌓고 실력을 높인 연구자들은 분리식겔전기영동장치, 전기화학식면역수감기, 신형코로나비루스항체항원신속검사용생물수감기 등 우월한 검사설비들을 련이어 개발해냈다.

핵산검사의 과학화수준을 높이면서도 생태환경감시에 효과적인 이 설비들은 성능이 우수하고 경제적효과성이 높은것으로 하여 도입단위들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글 김지성, 사진 김영호

공산주의어머니영예상 수상자들

글 연옥, 사진 리영철

우리 나라에서 11월 16일은 어머니날이다. 본사편집국에서는 이날을 맞으며 지난해에 진행된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에서 공산주의어머니영예상을 수여받은 일부 어머니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백정숙

평양시 중구역 경림동 56인민반에서 살고있는 백정숙녀성은 3대에 이르는 지식인가정의 며느리이고 안해이며 어머니이다.

그의 시아버지는 우리 나라 수학부문의 첫 원사인 김지정 선생이다.

지식인가정의 대를 이어가도록

남편 김세기도 국가과학원에서 나라의 경제건설에 이바지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적지 않게 해결한 박사들중의 한사람이었다.

백정숙은 대학교단에서 수십년간 예술인후비를 키워오면서도 자식들이 가정의 대를 이어가도록 참되게 교양하였다. 교수 준비와 강의로 바쁜 그였지만 매일 저녁 집에 들어서면 언제나 자식들의 학습에 깊은 관심을 돌리곤 하였다.

그리고 자식들의 담임교원들과 늘 긴밀한 련계밑에 학습과 소년단생활 등을 알아보고 제때에 대책하곤 하였다.

언제인가 고급중학교에 다니던 아들이 학습에 대한 요구성을 높이는 그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가 과학을 했다고 해서 우리도 꼭 과학을 해야 한다는 법이요 있나요?》

《훌륭한 가풍도 계속 이어져야 빛나는것이다. 할아버지는 해방후 공화국의 품에서 원사, 교수로 값높은 삶을 빛내였고 아버지는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겨왔다. 난 너희들도 지식인가정의 대, 우리 가정의 가풍을 변함없이 이어가길 바란다.》

자식들이 과학과 기술로써 나라의 은덕에 보답하는 애국자가 되도록 교양하고 떠밀어준 백정숙녀성의 노력에 의해 오늘날 아들은 국가과학원에서 박사로, 두 딸은 김책공업종합대학과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에서 교육자로 일하고있다.

네 자식을 병사로

평양시 순안구역 대양동에서 사는 김영애녀성은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녀성이다.

그는 자기의 네 자식모두를 조국보위초소에 세웠다.

20여년전 김영애녀성이 맏아들에 이어 둘째아들을 낳았을 때 시어머니는 《자식을 많이 낳아라. 애들을 모두 나라를 지키는 병사들로 키워 내세우자꾸나. 그것이 백성된 도리이니라.》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그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자기가 살아온 행로를 돌이켜보았다.

어릴적에 부모를 잃은 그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다. 그러나 그는 나라의 따뜻한 보살핌속에서 부모없는 설움을 모르고 자랐다.

이러한 그였기에 자식을 많이 낳아 고마운 조국을 지키는 병사들로 키워 내세우라는 시어머니의 당부를 무심히 받아들일수 없었다.

하여 그는 네 자식을 가진 어머니가 되었다.

그는 어느한 농장의 남새분조장으로 일하는 속에서도 자식들에 대한 교양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식들이 길가에 떨어진 자그마한 강냉이이삭도 제손으로 주어 농장탈곡장으로 가져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과서와 학습장을 정히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동무들과 웃어른들에게 레질바르게 행동하도록 늘 교양하였다.

어머니에게서 올바른 가정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자식들은 학교에서나 마을에서나 선생님과 동무들, 동네어른들의 사랑을 받았다.

세 아들이 몇해사이에 조국보위초소로 떠난 후 고급중학교를 졸업하게 된 막내 인경이도 조선인민군입대를 희망하였다. 학교선생님들과 동네어른들은 외동딸인 너만이라도 대학



김영애

공부를 하면서 어머니의 곁에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만류하였지만 인경이는 자식들을 모두 조국보위초소에 세우는것이 어머니의 소원이자 자기들의 지향이라고 하였다.

인경이의 군복입은 모습을 보며 농장마을의 많은 사람들은 훌륭한 자식의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보았다고 한다.

어머니날

어머니날은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어머니들을 위하여 제정한 명절이다.

우리 나라에서 어머니날은 11월 16일이다.

2012년 11월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1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석하시여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신 이날을 어머니날로 제정함에 대한 정령을 공포하였다.

* * *

세번째로 최우수감독이 된 신정림

지난해에 진행된 제33차 올림픽경기대회 물에 뛰어들기 여자 10m고정판 동시경기에서 난도높은 기술동작을 보여준 조진미선수.

2024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그의 뒤에는 소백수선수단 감독 신정림이 있다.

근 15년간의 감독경험을 가지고있는 그는 지난 기간 조진미뿐 아니라 김국향, 박은정을 비롯한 우수한 물에뛰어들기선수들을 키워 3차례에 걸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 감독으로 되었다.

그가 물에뛰어들기와 인연을 맺은것은 38년 전이었다.

7살때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예술체조를 배우기 시작한 그는 몇년후 소백수선수단 물에뛰어들기종목으로 방향전환을 하였다. 그는 어릴 때부터 예술체조를 하였기에 그 누구보다 몸이 유연한 우점을 가지고있었지만 회전각이 부족하여 정확한 퍼기위치에서 자기 동작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었다.

신정림은 자기의 육체기술적약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살리면서 난도높은 기술동작들을 꾸준히 런마해나갔으며 마침내 제1차 세계군대종합체육경기대회(당시) 1m탄성판 여자개인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하고 공훈체육인칭호를 받았다.

그후 정림은 조선체육대학을 졸업하고 감독이 되었다.

그는 우리 나라 물에뛰어들기종목을 하루빨리 앞선 순위에 올려세우기 위해 적성체질의 선수 선발에 많은 품을 들이였다. 그가 훈련장들과 경기장들을 발이 닳도록 찾아다니며 선발한 첫 선수가 바로 김국향이였다.

정림은 김국향을 세계적인 선수로 키우기 위한 단계별계획과 전망목표를 세우고 그것들을 순차적으로 착실히 집행해나갔다.

그는 여러 각도에서 훈련과정안을 따져보고 경기록화장면들도 하나하나 분석하여보면서 사색을 거듭하였다. 이 과정에 그는 감독의 주입식훈련방법으로는 결코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감독중심이 아니라 선수중심에서

서 김국향의 육체적조건에 맞게 특기동작을 런마시키는데 힘을 넣었다. 그리고 여러가지 경기정황들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단위시간동안에 동작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훈련방법을 도입하였다.

정림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김국향선수는 제16차 국제수영련맹(당시) 세계선수권대회와 제29차 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 물에뛰어들기 여자 10m고정판경기에서 1위를 쟁취하여 우리 나라 수중체육계의 첫 세계선수권보유자로 되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2019년 국제수영련맹 물에뛰어들기 세계순회경기대회와 제8차 아시아컵물에뛰어들기 경기대회에서도 1등을 쟁취하였던 조진미선수가 다음해 국내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지 못하였다.

신정림은 조진미선수의 육체기술적지표가 하강선을 긋고있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진미에게 진짜강자는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라고 나약해지는 마음을 다잡아주었다. 그리고는 조약과 회전속도, 입수물잡기가 좋은 진미의 장점을 적극 살리면서 미약한 동작들을 완성할수 있게 훈련계획을 다시 세우고 무조건 집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여나갔다.

하여 조진미선수는 여러 차례의 검열경기과

선발경기에서 평시에 런마한 육체기술적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으며 김미래선수와 한조가 되어 제33차 올림픽경기대회 물에뛰어들기 여자 10m고정판 동시경기에서 2위를 쟁취하였다.

김국향선수에 이어 박은정, 조진미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5개의 금메달을 포함한 10여개의 메달을 쟁취하였다.

우수한 체육인들을 키워낸 공로로 신정림은 인민체육인칭호를 받았다.

글 연옥
사진 김성철, 리영철





권총사격장에서

메아리 사격관



50m보총사격장에서



광선총사격장에서

수도 평양의 곳곳에 꾸려져있는 대중봉사기지 중에는 메아리사격관도 있다.

우리는 얼마전 청춘거리에 자리잡고있는 이곳에 대한 취재길에 올랐다.

사격관은 사시절 푸르른 솔숲이 우거진 야산 기슭을 따라 조화롭게 들어앉아있었는데 마치도 아담한 휴양소를 방불케 하였다.

우리를 이곳 봉사부원 김미화가 반갑게 맞아 주었다.

우리가 1층 현관홀에서 정면벽을 장식한 원형과 녀중심에 《메아리》라는 글자를 새겨넣은 마크를 한동안 바라보고있는데 어디선가 동물들의 새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광선총사격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라고 알려주는 봉사부원의 안내를 받으며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었다.

사격장에서는 소학교학생들인듯한 소년들이 수림속을 뛰어다니는 곰과 범, 메돼지 등 대형현 시기에 나타나는 각종 짐승들을 《사냥》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우리는 이어 50m보총사격장으로 향하였다.

그곳에서는 두 녀성이 사격경기를 하고있었는데 사격장밖의 관람석에서는 많은 손님들이 사격 결과가 현시될 때마다 환성을 울리며 제가 명중 시킨듯이 서로가 기뻐하고있었다. 가슴후련히

총을 쏘고나니 마음이 별스레 억세어지며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면서 한 녀성은 《한발한발 방아쇠를 당기며 목표판을 명중시켰을 때의 쾌감은 어디에 가서도 느끼지 못할것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제대군인이라면서 늘 사격에서는 자신있다고 하는 세대주를 데리고와 경기를 하렵니다.》라고 웃으며 이야기하였다.

희열과 량만에 넘쳐있는 모습들을 보며 2층으로 오르는 우리의 귀전에 사람들의 떠들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들을 찾아 들어선것이 활쏘기장이었다.

직장별활쏘기경기를 위해 이곳에 왔다는 어느 한 기업소의 종업원들이였지만 그 누구도 30m밖에 있는 과녁을 맞히지 못해 《고심》하고있었다. 이때 푹심만으로는 할수 없는것이 활쏘기라며 요령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안내원의 말을 듣고 다시 경기를 하였지만 아쉽게도 무승부로 끝나자 웃음넘친 심경이질이 또 시작되었다.

웃음이 차넘치는 곳은 이곳뿐이 아니었다.

25m권총사격장도 그러하였지만 실지 살아있는 동물들에 대한 사격을 하는 야외사격장은 그야말로 초만원이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25m권총사격장에서 낮을 익힌 20대의 청년들을 만나게 되었다. 자기들이 쏘아맞힌 꿩



활쏘기장에서



을 비롯한 사냥물들을 받으며 싱글 벙글 웃는 그들에게 감상이 어떤가고 묻자 부동적인 목표판을 겨누어 맞히는 재미보다 여기 야외사격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짐승을 맞히었을 때의 감정은 진짜사냥꾼이 된 심정이라고, 사격에 대한 애착이 더욱 강렬해져 다음번에도 여기에 다시 오겠다고 하였다.

비단 이들의 모습만이 아니었다.

전자오락장, 정구장과 배구장, 바드민턴장 등 그 어디에서나 활력에 넘쳐 휴식의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 주었다.

자기들이 사냥한 짐승으로 식당에서 요리를 맛보는 사람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행복의 웃음소리가 메아리되어 울려 퍼지는 메아리사격관을 나서는 우리도 정이 들어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글 김대철
사진 김성철



여러가지 봉사도 진행한다.



이채로움을 더해 주는 완구상점

얼마전 우리가 자연박물관에 대한 취재를 마치고 나설 때였다.

《야! 엄마, 저기에 꿀꿀이가 있어요.》

《정말, 원숭이도 있구.》

떠들썩하는 아이들과 부모들의 모습에 끌려 우리의 눈길이 닿은 곳은 박물관의 1층에 자리 잡고있는 완구상점이었다.

백창석부관장은 《박물관을 돌아본 사람들은 누구를 막

론하고 의례히 완구상점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어린이들이 특별히 많이 오는데 그것은 판매되는 완구들 하나하나가 동심에 맞게 제작되었기때문이라고 봅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상점의 매대들에는 토끼, 곰, 사슴, 캥가루, 거북기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동물모양의 완구들이 주먹만한것으로부터 1m를 넘는것까지 크기별로 있었다.

《토끼완구가 정말 깜찍한데,

저 곰완구는 내 키만하구나. ...》 하며 어느것을 골라야 할지 몰라하는 아이들, 자식들이 원하는 완구를 사주느라 여념없는 부모들, 그들의 기호에 맞는 완구들을 골라주느라 드바쁜 봉사자들의 얼굴마다에 미소가 어려어 있었다.

평양시 대성구역 룡흥2동에서 살고있는 독고은향은 《자연박물관을 돌아보면서 받은 감흥도 크지만 다양한 동물완구들이 짝 들어찬 이 완구상점에서 아들이 원하는 완구를 사주니 좋고 기념으로도 되니 좋습니다.》라고 하였다.

손님들중의 누군가가 호기심을 안고 완구의 생산단위가 어디인가고 판매원에게 묻자 그는 자연박물관 대성산생활용품 생산소에서 생산한것들이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우리는 자연박물관 대성산 생활용품생산소에서 발걸음을 옮기었다. 자연박물관 4층에 있는 생산현장에 들어서니 열띤 토의를 진행하고있는 종업원들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다.

강은정책임자는 생산소에서 만드는 완구는 13종에 수백가

지이라고, 상점에서 완구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 미치고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라고, 지금 생산능력을 높일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집체토의를 하는중인데 종업원들속에서 좋은 안들이 적지 않게 나왔다고 하는것이였다.

듣던바 그대로 박은영, 심행복, 리옥영을 비롯한 여러 종업원들속에서 재단과 가공에서 질과 속도를 높일수 있는 기발한 착상들이 제기되었다. 더우기 재단공 김금녀가 내놓은 여러종의 완구도안들은 형태가 새롭고 특색있어 대중의 일치한 평가를 받고있었다.

강은정책임자는 한주일에 한번씩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협의회를 통해 생산소의 생산능력개선과 새 제품개발에서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고 하면서 특색있는 완구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하여 구매력을 계속 높여나가겠다고 하였다.

이곳 생산소의 제품들로 하여 자연박물관은 더욱 흥성이고 있다.

글 김지성
사진 리영철





화성락원 불고기 식당

화성락원

불고기 식당

화성락원불고기식당은 수도 평양의 화성지구에 자리잡고있다.

연건축면적이 4 000여㎡에 2층으로 세워진 식당은 외부형식만 보아도 고기구이로를 생동하게 형상하고있어 첫눈에 불고기식당이라는 인상을 주고있다.



소, 돼지, 양 등 고기를 부위별로 수십가지의 양념에 재워 참나무를 때서 나오는 110℃의 연기에 18시간동안 구워내는 바비큐는 지방이 없고 그 맛이 좋은것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식당에서는 소가슴살바비큐, 돼지목살바비큐, 양갈비바비큐, 돼지갈비바비큐에 훈제쏘세지, 구운과인애플, 구운식빵, 마늘향닭구이, 종합남새무침, 흰배추겨자소스 등을 곁들여 4명분 혹은 6명분으로 내고있다.

이외에도 소어깨살불고기, 소세겹살불고기, 양다리불고기, 오리불고기, 돼지세겹살불고기를 비롯한 40여가지의 불고기와 런어배살회, 계사니간 햄버거 등 200여가지의 각종 요리들을 봉사하고있다.

식사실들을 오가며 부지런히 요리를 나르는 로보트들의 《봉사》는 식당분위기를 더욱 이채롭게 하고있다.

경리 조향미는 《지난 4월 화성지구에 세번째로 되는 준공식이 있은 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바비큐를 봉사하고있다. 봉사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 인민들과 외국손님들이 자주 찾아오고있다. 우리는 손님들의 구미에 맞게 그리고 보다 친절하게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글 연옥
사진 리영철



세계지질공원 백두산지구(3)

쌍무지개봉화산



쌍무지개봉화산은 천지의 동쪽, 향도봉화산의 북쪽으로 약 0.8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있으며 해발높이는 2,626m이다.

오랜 세월 백두산의 기상을 더해주며 솟아있는 이 봉우리는 쌍무지개가 자주 비끼군 하는 자연의 특이한 현상을 반영하여 쌍무지개봉

간백산화산

간백산화산은 간백칼데라의 북쪽에 있는 해발높이가 2,162m인 화산으로서 간백산등줄을 따르는 방사상단층과 고리모양단층이 사귀는 곳에 있다.

화산은 북포태산층의 조면영안암우에 5차례의 크지 않은 분출에 의하여 형성된 조면암, 조면영안암질용암과 응회암이 쌓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분출작용의 말기에 칼데라의 안쪽이 떨어져나가 현재와 같은 모양이 이루어졌다.

칼데라쪽의 벼랑경사는 75~80° 이고 바깥

이라고 부른다.

쌍무지개봉과 향도봉사이에 있는 낮은 안장부는 천지호반과 천지구변의 산릉선사이로 오르내리는데 유리한 곳으로서 백두산지구의 품이 다니는 유일한 통로로 되고있다.

이 화산체의 하부는 크고작은 모난 자갈들로 덮여있고 상부는 각력암층, 황색응회암층, 부석층 그리고 류문암질용암층으로 이루어졌다.

이 화산은 북포태산층이 쌓인 후에 크지 않은 분출이 4차례 진행되어 형성되었다.

분출의 마지막시기에 분기형분출이 진행되어 함유화물암석이 형성되었다.

화산의 정점과 경사면에 백색부석층이 쌓여있는데 그 두께는 무려 100여m에 달한다.

천지구변의 화산들가운데서 유일하게 화산의 정점이 그대로 보존되어있는 지질유적이다.



릉선의 경사는 20~23° 이다.

간백산화산은 소백산화산무리의 화산활동연구에서 의의가 있다.

배개봉화산

배개봉화산은 북서방향의 백두산심부단렬대에 놓여있는 소백산화산과 북포태산화산의 거의 중간에 있는 화산으로서 해발높이는 1,621m이다.

배개봉화산은 3개의 현무암질용암체로 이루어졌는데 봉우리의 생김새가 배개와 비슷하다고 하여 그 이름을 배개봉이라고 부른다. 가운데 용암체는 동쪽으로, 그 량쪽의 용암체는 북동방향과 남서방향으로 뻗어있다.

산마루에는 평탄한 용암대지가 펼쳐져있고 주변은 15~20°의 경사를 가지는 비탈면이



산체를 둘러싸고있다. 화산체는 회색의 현무암과 적색 또는 붉은밤색의 다공성현무암으로 되어있다.

배개봉화산은 현무암질용암에 의하여 형성된 화산지형에 대한 연구에서 의의를 가진다.

소연지봉소화산체



소연지봉소화산체는 백두산화산분출의 제3단계에 백두산화산체의 변두리에서 분출한 광재암

으로 이루어진 말발굽모양의 기생화산이다.

일반적으로 기생화산은 큰 화산의 비탈면이나 기슭에 있는 작은 화산을 말한다.

소연지봉소화산체는 경사가 완만한 화산추를 이루며 분화구를 가지고있다.

소연지봉은 백두산화산의 분화구중심으로부터 남동쪽으로 10.5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있으며 해발높이는 2,114m, 상대높이는 133m이다. 분화구의 직경은 500m이며 화산기슭의 직경은 1.2km정도이다.

소연지봉소화산체는 기생화산의 형성과 백두화산대에서의 암장진화연구에서 의의가 있다.

무두봉소화산체

무두봉소화산체는 백두산화산의 기생화산으로서 해발높이는 1,930m이고 상대높이는 150m정도이다. 기본산체는 붉은밤색의 광재암으로 되어있고 그의 윗부분에 부석이 덮여있다.

기반암은 백두산중심화산의 1단계 현무암으로 되어있고 그우에 2단계 조면영안암이 종모양으로 놓여있으며 또 그우에 3단계 조면현무암질암장의 폭발성분출산물인 광재암이 덮여있다.

남쪽과 서쪽비탈면에는 부석이 두껍게 쌓여있고 동쪽과 북쪽비탈면에는 부석층의 두께가 작아산체는 비대칭을 이루고있다.

무두봉소화산체에서는 부석속에 묻혀있는

화산탄과 땅속에서 화산성가스가 나오는 분기공을 볼수 있다.

무두봉소화산체는 화산분출작용후 지형변화연구와 염기성암장의 폭발성분출연구에서 의의가 있는 지질유적이다.



태권도도복과 띠

동포여러분, 오늘 우리 나라에서 어디 가나 태권도보급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권도수련이나 경기를 할 때 입는 도복을 잡지 《금수강산》에 소개할 생각을 가지게 된것은 지난 8월에 진행된 전국태권도애호가경기-2025가 있는 후였습니다. 유치원어린이들의 태권도시범출연이 한창 진행되고있을 때 관람석에 앉아 시범출연을 보고있는 우리의 귀가로 이런 말소리가 들리었습니다. 《저기 저 앞줄에 맨 가운데 선 애가 바로 우리 손주예요. 유치원에서 태권도를 배운지 열 달밖에 안되었는데 이제 제법



이예요.》 《이제 인차 우리 손녀두 출연 할거요. 그엔 태권도학교로 소문이 자자한 은정구역 은정고급중학교 태권도소조원이요. 이번에 내가 그애의 도복을 마련해주면서 알게 되었는데 태권도종목엔 기술수준에 따라 도복과 띠가 다르더구만요.》 《그래요?》 태권도도복과 띠. 우리로서는 그저 흘려들을 말이 아니었습니다. 태권도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해도 아마 도복과 띠에 대해 정확한 표상을 가지고있기는 어렵기때문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 말이 난김에 조선태권도위원회 실장 박사 부교수 석민철에게 태권도도복과 띠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를 부탁하였습니다.

기자: 태권도도복은 우리 민족이 사랑하는 흰색이어서 언제 보아도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도복을 입으면 운동하기에도 아주 편리한것같은데 이 옷의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석민철: 도복은 저고리와 바지 그리고 띠로 구성되어있으며 옷색같은 흰색입니다. 저고리

의 왼쪽가슴부위에는 국제태권도련맹마크가, 뒤편에는 조선어와 영문으로 소나무를 형상한 상징도형이 새겨져있습니다.

저고리는 모든 기술동작을 수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소매 끝이 손목까지 오게 하였으며 저고리아래 좌우엎은 약 7cm 되게 러쳐놓았습니다. 바지길이는 발목까지 옵니다.

기자: 유급자들과 유단자들의 도복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석민철: 도복은 급과 단의 소유정도에 따라 입게 됩니다.

10급부터 1급까지 유급자의



도복저고리는 흰색바탕의 옷그대로입니다. 유단자들은 1단부터 3단까지는 저고리의 아래단테두리에, 4단이상은 아래단테두리와 량팔에 각각 2~2.5cm정도의 검은 띠를 두른 도복을 입습니다.

1단이상의 유단자가 착용하는 도복을 유단자도복이라고 하며 4단이상의 유단자가 착용하는 도복을 사범도복이라고 합니다. 4단부터 9단까지의 유단자는 같은 도복을 착용하고 견장으로 사범, 사현, 사성을 구분합니다.

기자: 급과 단에 따르는 도복 띠의 색깔에도 모두 의미가 있는것같습니다.

석민철: 예, 그렇습니다.

유급자띠에는 5가지 색 즉 흰색, 노란색, 초록색, 푸른색, 빨간색의 띠가 있으며 띠에는 홀수급수를 나타내는 색선표식이 있습니다.

흰색띠는 태권도를 처음 배우는 수련생을 의미하고 노란색 띠는 새싹이 움트는것과 같이 태권도의 기초단계를 의미하고 초록색띠는 초목이 자라는것과 같이 태권도의 기술이 발전되어가는것을 의미합니다.

푸른색띠는 하늘을 상징하는데 나무가 하늘을 향해 크게 자라듯이 태권도기술이 상당한 단계에 이른것을 의미합니다.

빨간색띠는 위험성을 뜻하는것으로서 수련생이 상당한 위력을 지닌것으로 하여 상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고합니다.

1단이상의 유단자띠는 검은색이며 띠앞부분에는 단수를 나타내는 로마수자가 새겨져있습니다.

태권도띠는 도복저고리를 감아주어 운동에 편리하게 허리와 배근육을 잡아줄뿐 아니라 급수, 단수를 표시하고있습니다.

띠는 허리에 한번 두르며 한쪽을 우로 올려 다른쪽을 감아준 다음 서로 매듭을 짓는 방법으로 착용합니다. 이때 단수표식을 한 띠부분이 왼쪽에 오도록 하여야 합니다.

동포여러분, 국제태권도련맹은 이렇게 태권도모국인 우리나라의 민족적특성과 리념, 정신적바탕과 기술의 정통성을 뚜렷이 반영하고 또 다른 무도들과 명백히 구별하기 위하여 태권도의 도복과 띠를 제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태권도도복과 띠에 대해 잘 알고 해외에서도 태권도를 즐겨하며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글 연옥
사진 리영철

유모아

말닭의 시샘

이른아침 할머니가 손자애를 업고 소젖짜러 갔다. 할머니가 한창 소젖을 짜고있는데 애가 보채기 시작하였다. 손자애는 할머니가 짠 신선한 소젖을 먹고 울음을 그치였다. 마음이 흡족해진 할머니는 젖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젖소가 참 용타. 먹는건 풀인데 나오는건 맛있는 것이거든.》 할머니곁에서 그 말을 듣고있던 암탉이 한마디 내



쫘았다. 《흥! 젖소가 뭘 그리 대단하다고 그래요. 젖소가 나처럼 닭알을 낳을줄은 안대요?》 그러자 할머니는 암탉에게 편잔을 주었다. 《젖소가 닭알까지 낳는다면 넌 무슨 소용이 있겠니?》

* * *



16세기의 명인 리이

리이(1536년-1584년)는 조선 봉건왕조시기 유명한 유학자였다. 그의 자는 숙헌, 호는 룰곡이다.

그는 당대 녀류명사로 불리운 어머니 신사임당의 훌륭한 교양을 받으면서 자랐다. 유년 시절부터 어머니의 글과 그림을 눈여겨보며 자란 그는 글공부를 시작하기 전부터 어머니의 흉내를 곧잘 내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룰곡이 3살되는 해 어느 가을날 외할머니가 마당 한구석에 서있는 석류나무를 가리키며 시를 한수 지을수 있겠는가고 묻자 대뜸 자작시 한수를 거침없이 읊었다.

은행은 껍질속에 푸른 덩어리
구슬을 머금었고

석류는 껍질속에 붉은 부스레
기구슬을 머금었네



석류의 모양을 아름답게 묘사하여 그 알을 구슬로 형상해낸데 대해 외할머니는 물론 어머니 신사임당도 깜짝 놀랐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룰곡은 어렸을 때부터 명석한 판단력도 지니고 있었다.

그가 7살되던 해에 아버지를 따라 어느한 고을로 이사를 간적이 있었는데 이웃집에 사는 한 청년을 보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었다.

《옹고 착한 사람은 마음속에서 항상 옳은 생각을 하기때문에 눈길이 밝고 맑은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의혹을 품고있기때문에 언제나 침착하지 못하고 당황하며 자기가 할 일을 뚜렷하게 정하지 못한다. 저 사람은 마음속이 항상 어둡고 어질지 못하다. 만일 이런 사람이 권력을 잡는다면 큰 잘못을 저지를 것이다.》

그 청년은 어려서부터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으로서 과연 후날에 크게 출세하였으나 모략과 모함으로 많은 애국지사들과 학자들을 귀양보내는 나쁜짓을 하였다. 이것을 목격한 당대 사람들은 룰곡의 뛰어난 판단력에 다시금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룰곡은 많은 일화도 남기었다.

그에게는 장기를 좋아하는 스승이 있었다. 그런데 그 스승은 이웃사람과 내기장기를 하여 지는 바람에 밭을 다 떼우고 몇해째 농사를 짓지 못하고있었다.

룰곡은 친구들로부터 이 사실을 듣고는 아무리 내기장기로 서니 땅을 그렇게 빼앗아가지는 법이 어디 있는가고 격분해하였다. 룰곡은 생각끝에 자기가 스승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스승이 이웃집에 가서 주인과 장기를 두도록 하고 자기는 구경하기로 하였다. 약속된 날에 찾아가니 스승과 이웃집주인이 한창 장기를 두고있었는데 룰곡은 한판만 보고 돌아왔다. 다음날 룰곡은 혼자 그 집주인을 찾아가 장기수가 보통이 아닌데 한번 해보지 않겠는가고 하였다. 그 청에 선뜻 응한 집주인은 자기가 지면 발문서를 내놓겠다고 장담하며 장기판을 펴놓았다. 이어 장기경기가 시작되었는데 첫시작부터 치렬하게 진행되었다.

결국은 룰곡이 3회 3승으로 이겼다.

그는 집주인으로부터 발문서를 찾아서 스승에게 되돌려주었다.

그때 룰곡이 쓴 수법은 《3천 30법》이고 집주인이 쓴 수법은 《28수법》이었다고 한다.

글 김일봉



조국의 역사유적을 찾아

웅상동의 역사유적들



라선시 선봉구역 웅상동에는 여러 유적들이 있다.

웅상동바위그늘유적, 웅상동1호고인돌무덤과 웅상동2호고인돌무덤이다.

바위그늘유적은 원시시대의 유적으로서 원시시대 사람들이 지붕의 처마나 모자채양모양의 바위밑에서 눈비를 그으면서 로동생활을 진행하던 곳이다.

그 크기는 길이 900cm, 너비 300cm, 면적은 80여㎡이다.

웅상동바위그늘유적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바위그늘유적의 하나로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희귀한 유적이다.

웅상동1호고인돌무덤은 길이 120cm, 너비 84cm, 높이 60cm의 크기로 땅을 파서 무덤칸을 만들고 그우에 큰 뚜껑돌을 덮은 고조선시기 전반기의 석천산형고인돌무덤으로서 여기에서는 갈색민그릇조각을 비롯한 유물들이 나왔다.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일대에만 분포되어있는것으로 인정되어오던 석천산형고인돌무덤이 라선시에서 처음으로 발견됨으로써 대동강문화가 우리 나라 전 지역에 파급되어갔다는것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적으로 된다.

웅상동2호고인돌무덤은 2개의 판돌을 세우고 그우에 큰 뚜껑돌을 덮은 고조선시기전반기의 오덕형고인돌무덤으로서 여기에서는 석기반제품과 갈색민그릇조각이 나왔다.

오덕형고인돌무덤은 지금까지 함경북도 어랑군이북지역에서 발견된것이 없었는데 라선시에서 처음으로 알려진것으로 하여 고인돌무덤이 우리나라 전 지역에 퍼져나갔다는것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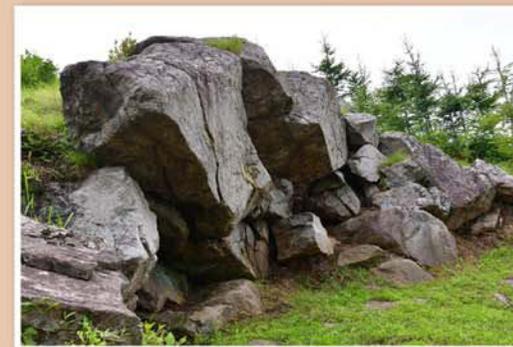
글 임향심, 사진 황정혁



웅상동1호고인돌무덤



웅상동2호고인돌무덤



웅상동바위그늘유적

《을사5조약》의 불법무효성

1905년 11월 17일은 일제가 온갖 기만과 강압적방법으로 칙령적인 《을사5조약》을 날조한 날이다.

일제는 이 《조약》을 《법적 근거》로 하여 우리 나라를 식민지화하고 우리 인민에게 해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쳐왔다.

《을사5조약》이 국제법상의 요구와 원칙을 란폭하게 유린한 불법무효한 《조약》이라는 것은 세상에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비법적인 칙령문서가 날조된 때로부터 일본은 120년이 되는 지금에 와서도 그의 《합법성》과 《적법성》에 대해

운운하면서 그것을 과거청산을 거부하는 《근거》의 하나로 들고나오고있다.

그러나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절대로 지울수도 외국할수도 없는것이 바로 력사이다.

력사적사실자료들은 일제의 날강도적인 《을사5조약》의 불법무효성을 폭로하고있다.

《을사5조약》의 불법무효성은 우선 합법성이 보장되지 못하였다는것이다.

당시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나라들사이의 조약체결원칙과 규범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조약당사국 최고주권자의 사전승인과 수표, 국새날인이었다.

《을사5조약》은 애당초 고종

황제의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것이다.

고종황제는 1905년 11월 15일 왜 왕의 특사로 우리 나라에 기여든 이또와의 면담에서 《이 조약을 허락하면 곧 나라가 망하는것과 같은것이니 짐은 차라리 종묘사직에 순국할지언정 인허하지 못하리라.》고 하면서 조약체결을 처음부터 완강히 반대하였다.

그러다나니 《을사5조약》에는 고종황제의 수표와 국새날인도 없다.

《만국공법》 제415장에는 《조약을 맺은 일이 만일 나라를 망치는것과 같거나 혹은 해당 국가를 압박하여 쇠약하

고 발전하지 못하게 만드는것이면 버려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황제의 승인과 수표, 국새날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에 의하여 《을사5조약》이 일방적으로 조작공포되자 고종황제는 즉시 그 무효를 내외에 선포하였다.

고종황제는 1907년 6월 네델란드의 헤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전 평리원 검사리준을 비롯한 특사들을 비밀리에 파견하여 《을사5조약》이 무효임을 세상에 선언하게 하였다.

《을사5조약》의 불법무효성은 또한 총칼의 위협속에서 강압적으로 날조되었다는데 있다.

국제법에서는 조약의 불법무효성을 규정짓는 기본조건을 강제성으로 보고있다.

위협과 강박만으로는 고종황제와 대신들을 굴복시킬수 없다고 타산한 일제는 저들의 무력까지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살벌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조약》에 조금이라도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외부대신의 입장을 훑쳐내어 제멋

대로 찍는 비렬한짓도 서슴지 않았다.

불법무효성은 또한 합법적조약 문건으로서의 초보적인 체모도 갖추지 못한 날조품이러는데 있다.

《을사5조약》에는 서문과 조항들만 있을뿐 조약의 이름조차도 없다.

국제관례상 조약명이 밝혀져 있지 않으면 조약문이라고 할수 없으며 그러한것을 조약체결상대국과의 협의에 제출할수 없고 거기에 서명할수도 없다.

당시 일제는 《을사5조약》을 날조하는데 급급해하던 나머지 조약명칭을 미처 달지 못하였다.

그후 《조약》을 령강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일제는 《외교위탁조약》이라느니, 《보호협약》이라느니 하는따위의 얼치기 《명칭》들을 사용하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까지도 《을사5조약》을 비롯하여 저들이 날조, 강압체결한 모든 《조약》들과 《법문서》들의 《적법성》을 떠들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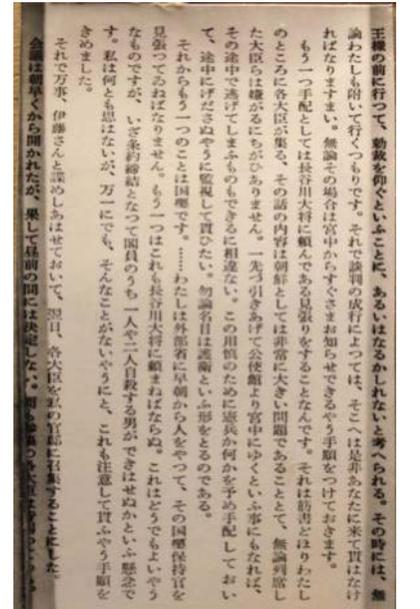
이것은 과거범죄의 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간특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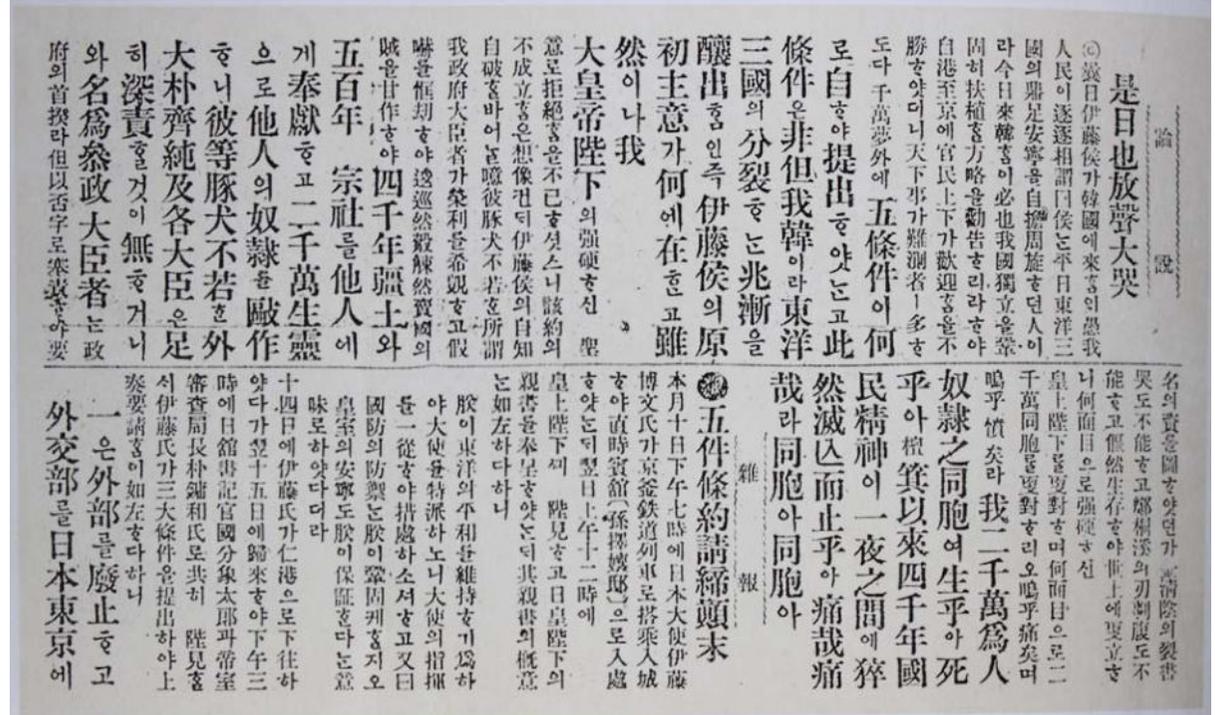
과거청산은 일본정부와 정치가들, 일본국민이 력사앞에 지니고있는 정치도덕적의무이다.

일본은 반드시 과거의 치욕스러운 죄악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여야 한다.

글 김성경



《을사5조약》을 강압날조한데 대한 당시 조선주제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께의 고백문



당시 《황성신문》에 실린 《시일야방성대곡》

상식

물질대사를 촉진시키는 양파

양파는 여러가지 당질과 레몬산, 사과산, 류화알릴 등의 성분들을 가지고있으며 단맛, 매운맛과 함께 특이한 향기를 낸다. 여기서도 류화알릴은 소화액의 분비를 돕고 물질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며 특히 비타민B1가 잘 흡수되게 하여 피로감, 식욕떨어짐 등에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당뇨병과 고혈압,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작용을 한다. 양파는 원기를 돋구는 남새로서 늙은이들에게 좋은 건강식품으로 되고있다.

* * *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 홈페이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